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54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11월 17일

기브란 인도네시아 부통령, 국민협의회(MPR)에 사임서 제출… '학력 논란' 끝에 퇴진

- 12일 의회 단지 방문해 아흐마드 무자니 MPR 의장에 사직서 전달
- 헌재·대법원의 '고교 학력 무효' 판결 및 하원 탄핵 추진에 정치적 결단
- 프라보워 대통령, 14일 내 후보 2명 추천해야… MPR, 60일 이내 후임 선출 착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공화국 부통령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선 당시 제출한 학력 서류의 효력을 둘러싼 사법부의 잇따른 무효 판결과 의회의 탄핵 압박에 직면하자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브란 부통령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간, WIB)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 내 누산타라 3관을 방문해 아흐마드 무자니 국민협의회(MPR) 의장에게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흰색 서류철을 든 채 현장에 도착한 기브란 부통령은 삼엄한 경호 속에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취재진에게 가벼운 목례만 건넨 뒤 곧바로 의장단 집무실로 향했다.

면담은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무자니 의장은 직후 브리핑에서 "기브란 부통령이 구체적인 사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임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자니 의장은 "MPR 의장단 회의를 즉시 소집하고,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 및 지역대표의회(DPD)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긴급히 열어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헌정사의 건전한 선례로 자리 잡고 민주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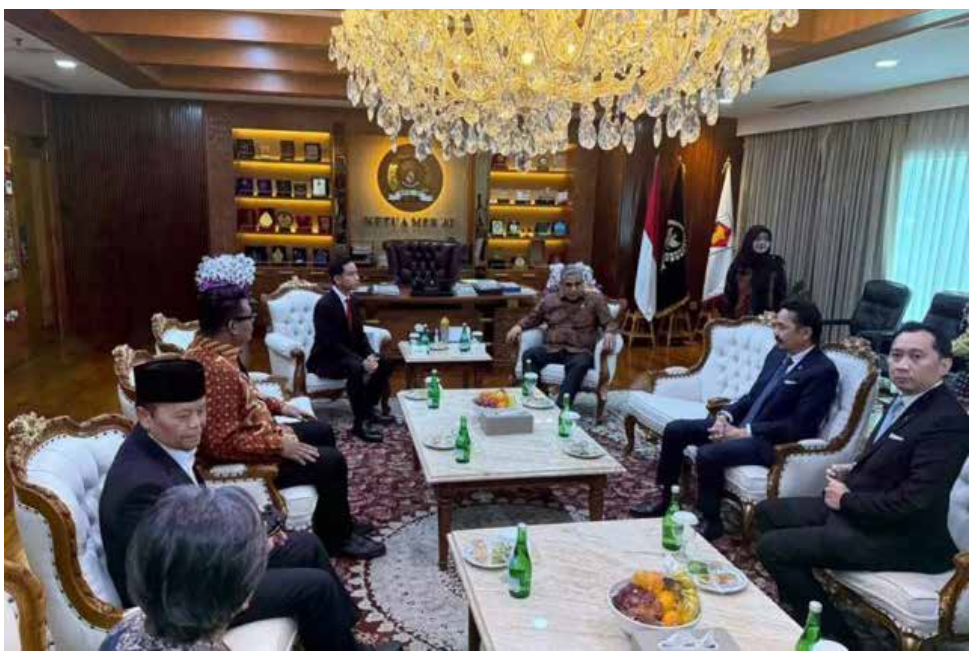
◇ 헌재·대법원 '학력 무효' 판결에 의회 탄핵 압박… 벼랑 끝 사임

기브란 부통령의 전격적인 퇴진은 최근 사법부 판결과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맞물린 결과다. 논란의 핵심은 2024년 대선 당시 부통령 후보 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기브란 부통령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SKPI)였다.

헌법재판소(MK)는 결정(제01/PHPU.PRES-XXIV/2026호)을 통해 기브란 부통령이 고등학교 학력에 상응하는 해외 학위나 수료증을 소지했다는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명시했으며, 대법원(MA) 역시 해당 증명서를 취소하고 당연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하원 내 8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약 120명이 의견표명권(HMP)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사임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기브란 부통령은 지난 1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장시간 회동을 갖고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11일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공식 사직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헌법상 사임 처리 권한을 가진 국민협의회를 찾아 최종 절차를 밟았다.

기브란 부통령은 앞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장기적인 정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가행정법원(PTUN)을 통해 소명 기회를 갖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이 2026년 11월 12일 의회 단지에서 국민협의회(MPR) 지도부와 사임관련 면담하고 있다. 사진 MPR

◇ 정국 급랭… 60일 내 후임 부통령 선출 절차 돌입

기브란 부통령의 사임으로 인도네시아 행정부 2인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메커니즘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는 전적으로 의회의 몫이 된다. MPR은 부통령직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식 후임 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열릴 MPR 본회의 최소 14일 전까지 법적 요건을 갖춘 2명의 후임 후보자 명단을 의회에 공식 제출해야 한다. 집권 초기 정국 안정을 위해 프라보워 행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후임 인선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인도네시아 기브란 부통령, 전격 사의 표명…
학력 무효 판결·도청 파문에 전·현직 권력 동맹 '파국'

- 대통령궁 공식 확인… 프라세티오 국가비서실 장관 "2시간 반 회동서 사퇴 의사 전달"
- 헌재 · 대법원, 기브란 부통령 해외 고교 졸업장 '부존재 및 무효' 최종 판단
- 하원 6개 정파 50명, 부통령 탄핵 전 단계인 '의견표명권(HMP)' 발의 착수
- 조코위 측근 비서실장의 '대통령 도청' 의혹 겹치며 신 · 구 정권 연대 사실상 종식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남이자 현직 인도네시아 권력 서열 2위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사법부의 학력 무효 판결에 따른 의회의 탄핵 압박과 더불어, 전임 정권 인사들의 현직 대통령 도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끝에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4년 대선을 기점으로 결성됐던 프라보워 대통령과 조코위 전 대통령 간의 전략적 권력 연대는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제7대)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기념일 에어쇼를 관람. 2026.8.17

대통령궁 "기브란 부통령 사의 전달 사실… 대통령, 사의 거부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10일, 기브란 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자카르타 위디아 찬드라 관저 단지에서 부통령과 대통령 간의 비공개 단독 회동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서 기브란 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MK)와 대법원(MA) 판결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엄중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직면하여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사의 반려설'을 일축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계에서 대통령께서 부통령의 사퇴 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려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기브란 부통령의 결정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프라세티오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동 중 부통령에게 정국 안정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며 "기브란 부통령은 향후 국가행정법원(PTUN)의 사법 절차를 통해 본인이 소지한 학력 증빙 문서의 법적 효력과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헌재·대법원의 '학력 무효' 철퇴… 의회, 탄핵 수순인 '의견표명권' 발의

기브란 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사의 표명 배경에는 사법부의 잇따른 유죄 취지 판결과 의회의 거센 퇴진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브란 부통령의 해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 발급 근거가 된 원본 졸업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인정 증명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결여된 '무효' 처분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이 잇따라 고위 공직자로서의 법적 자격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하원(DPR) 내 6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 50명은 기브란 부통령의 자격 상실 및 위법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 '의견표명권(HMP)' 발의를 공식 추진했다.

인도네시아 의회조직법(UU MD3)에 명시된 의견표명권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반역, 부패, 수뢰, 기타 중범죄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직무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 발동되는 권한으로, 실질적인 탄핵 소추의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의회 감시 조치다. 의회의 탄핵 시계가 가파르게 돌아가자 기브란 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도청' 파문과 신·구 권력 갈등의 폭발… '조코위 왕조'의 정치 위기

정치적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한 달 전 인도네시아 정계를 뒤흔든 '도청 스캔들'은 전·현직 권력 간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으로 파탄 냈다.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은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핵심 유력 인사들의 유선 통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57)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찰 고위 간부 3명을 전격 체포하거나 입건해 수사 선상에 올렸다.

리스티요 실장은 조코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21년부터 5년간 국가경찰청장을 지낸 조코위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 인사다. 전임 대통령의 최측근이 현직 대통령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과거 프라보워 대통령은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당시 후보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정적으로 맞섰다. 그러나 2024년 대선 당시 조코위 전 대통령의 막강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장남인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정치적 야합을 단행했고,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서민 기업인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꼽혔던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의 장남을 최연소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법까지 무리하게 개정하도록 배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대판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국내외의 우려 속에서도 유지되던 두 가문의 동맹은, 결국 자녀의 자격 논란과 권력 내부의 사찰 파문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끝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기브란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물러날 경우, 인도네시아 헌법 규정에 따라 공석이 된 부통령직을 메우기 위한 차기 선출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와 도청 수사가 전임 정권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국은 당분간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 hongsamball.id

인니 대법원, 초중등교육부에 기브란 부통령 고교 학력 인정 증명서 '취소 명령'

- 상고심서 1·2심 각하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 청구 전격 인용
- "출석 증명서로 정규 졸업 인정 불가… 행정청의 신중성 결여"
- 헌재 결정 및 실체적 정의 반영… 행정 처분 취소와 무효 확정



인도네시아 대법원(MA) - Gedung Mahkamah Agung (MA). (Foto. Dok. MA)

(자카르타=언론종합)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Mahkamah Agung, 이하 MA)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고등학교(SMA) 학력 인정 증명서(suket)를 무효로 판단하고, 소관 주무 부처인 초중등교육부(Kemendikdasmen)에 해당 처분을 공식 취소할 것을 전격 명령했다.

과거 대선 후보 등록 당시부터 인도네시아 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기브란 부통령의 해외 유학 학력 행정 유효성 논란이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로 뒤집힘에 따라,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742 K/TUN/2026호로 원심 깨고 '취소 의무' 부과

10일 공개된 판결문 정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6년 10월 30일 상고심 판결(사건번호 제742 K/TUN/2026호)을 선고하고 기브란 부통령에 대한 초중등교육총국장 명의의 학력 인정 증명서를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피고인 초중등교육부에 행정 처분을 즉각 취소할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대상이 된 처분은 지난 2019년 8월 6일 구(舊) 교육문화부 초중등교육총국장이 발급한 제9149/D.D1/KS/2019호 증명서다. 해당 문서는 기브란 부통령이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이력을 인도네시아 국내의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에 준하는 정규 학력으로 공식 인정한 행정 처분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통해 "피고는 2019년 8월 6일 자 인도네시아 공화국 교육문화부 초중등교육총국장 증명서 제9149/D.D1/KS/2019호를 전면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고심 비용 40만 루피아를 포함한 모든 심급의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시민 수브한의 끈질긴 법정 공방… 1·2심 각하 딛고 '대반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시민 수브한(Subhan) 씨가 2019년에 발급된 해당 증명서의 행정적·법적 적법성을 문제 삼아 초중등교육총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수브한 씨는 기브란의 학력을 인도네시아 고교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자카르타 고등행정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은 무위에 그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원고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율리우스(Yulius) 재판장과 마프투흐 에펜디(Maftuh Effendi), 하리 수기하르토(Hari Sugiharto) 배석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하급심의 판단을 전면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6년 10월 30일 재판부 평의를 거쳐 당일 법정에서 선고된 이번 상고심 판결문은 정본 송달 및 정리를 거쳐 11월 10일 화요일 일반에 전면 공개됐다.

"출석 증명과 졸업은 별개… 행정청의 중대한 실체적 하자"

대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리적 핵심은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인정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 서류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출석 증명서(certificate of attendance), 성적 증명서(academic records), 학점 설명서(explanation of grades) 등의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해당 서류들은 기브란이 해외에서 소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온전히 마쳤음을 증명하기에 객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출석 증명서는 본질적으로 특정 교육 활동이나 강의에 출석·참여했음을 입증할 뿐이며, 그 자체로 해당 교육과정을 온전히 마쳤다는 '수료'나 '졸업'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엄격히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규 학업 이수의 명확한 결과물인 졸업장, 공식 수료증, 혹은 디플로마(Diploma)와 같은 확정적 증빙 문서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학력을 인정한 행정 처분은 "행정청의 신중성 원칙을 중대하게 결여한 위법한 처사"라고 못 박았다. 행정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불완전했기에 해당 증명서 발급 처분은 실체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결론이다.

헌재 결정 참작·절차보다 '실체적 정의' 우선… 교육부 이행 여부 주목

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절차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본안 전 항변 역시 과감하게 배척했다. 피고 측은 그동안 소송 제기 기한 도과 및 원고의 당사자 부적격 등을 이유로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10월 5일 자로 내려진 헌법재판소(MK) 결정 제01/PHPU.PRES-XXIV/2026호를 새로운 법적 정황 사실로 공식 원용했다. 헌재 결정 이후 형성된 법적 환경의 변화가 계쟁 처분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고 측의 형식적 절차 항변을 배척할 충분한 법리가 확립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적합성을 넘어 '실체적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는 시정 조치를 명할 권한을 지닌다"며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선거 후보자 개인의 사익을 넘어, 국가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 원칙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설시했다.

최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행정 집행 당국인 초중등교육부로 향하고 있다. 피고인 교육부는 행정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초중등교육부의 증명서 공식 취소 공고와 향후 기브란 부통령의 공직 자격 논란 및 정치적·행정적 파장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브란 인니 부통령, 사임 의사 표명에 공식 입장… “정치적 논란 장기화 원치 않아”

- 학력 위조 논란 따른 탄핵 압박 속 프라보워 대통령과 회동
- 행정소송 및 재심 청구 등 법적 소명 절차 지속할 방침

[자카르타=언론종합] 학력 위조 논란으로 사임설이 불거진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브란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모든 목소리와 비판, 조언을 존중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장기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이 기브란 부통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앞 사임 의사 전달 사실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기브란 부통령은 이날 오전 프라보워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전하며, 사태 수습에 대통령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은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으로,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조언을 건넸다”며 “초등학교부터 학사 학위까지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 행정법원(PTUN)에서 유효성을 소명하고, 초중등교육부와 공조해 대법원에 재심(PK)을 청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사법당국의 연이은 판결로 촉발됐다. 대법원(MA)은 지난 10월 30일, 2024년 대선 당시 사용된 기브란 부통령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확인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0월 6일 헌법재판소(MK) 역시 기브란 부통령이 고등학교 학력에 준하는 해외 교육 이수증이나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고 사법기관의 잇따른 결정으로 자격 논란이 확산하자 정계의 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의회(DPR) 내 6개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50명은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의회조직법(UU MD3)상 ‘의견표명권(HMP)’ 발동을 추진 중이다. 해당 권한은 국가원수의 중대 범죄나 자격 상실 사유를 심의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기브란 부통령 '#기브란TV'라는 유튜브 채널

사법부 판결에 이어 의회의 탄핵 절차 착수까지 맞물리며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브란 부통령의 사임 표명과 법적 대응 방침이 향후 인도네시아 정국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조코위 전 인니 대통령, ‘위조 졸업장’ 재판서 13시간 증언… 원본 제시하며 “정의 구현” 촉구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위조 졸업장’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 졸업장 원본 4점을 법정과 방청객에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정의 구현을 호소했다.

5일(현지시간) 동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코위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증인 신문에 응했다. 이번 재판은 수년간 지속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했던 조코위 전 대통령의 학력 위조 의혹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는 자리였다.

이날 조코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에 따라 수라카르타 제111 국립초등학교, 수라카르타 제1 국립중학교, 수라카르타 제6 국립고등학교를 거쳐 족자카르타 소재 국립 가자마다대학교(UGM) 산림학부를 졸업하기까지의 학업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특히 그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UGM 산림학부 학사 학위 취득 과정과 당시 학적 현황에 대해서도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는 2026년 11월 5일, 동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졸업장을 제시했다.

진술을 마친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자신이 소지해 온 학력 증명서 4점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과 취재진을 향해 직접 들어 보였다. 앞서 검찰 측 증거물로 제출된 서류 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본을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공판 종료 후 조코위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초·중·고 졸업장과 학사 학위증까지 핵심 증거 4점을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에 모두 제시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왜곡된 의혹이 바로잡히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자신을 넘어 작고한 부모의 명예까지 훼손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돌봐주시고 대학 학비까지 뒷바라지해 주신 친부모님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깊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 청취를 거부한 로이 수료 등 피고인 측의 태도에 대해 “그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문제 삼지 않는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끝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타인을 고발하고 비방해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이 사회적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대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안이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함발랑 사저서 전직 경찰청장 10인과 회동… 경찰 현안 논의 및 정부 지지 표명



프라보워 대통령이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함발랑 사저에서 역대 경찰청장 10인을 초청해 회동을 갖고 있다. 2026.11.8 .(Dok. Sekretariat Presiden)

전 경찰청장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사건이후 프라보워 대통령이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함발랑 사저에서 역대 경찰청장 10인을 초청해 회동을 갖고, 경찰 내부 현안과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1월 9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열린 이번 회동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역대 경찰 수뇌부 간의 친교를 다지는 한편, 최근 국가경찰(Polri) 내부 동향을 비롯한 주요 시사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전직 경찰청장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 경험을 공유하며 경찰 조직 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퇴역경찰협회(PP Polri)의 전폭적인 지지 표명이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퇴역경찰협회 총재인 밤방 헨다르소 다누리 전 경찰청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가 사법 집행이 건국 5대 원칙인 '판차실라(Pancasila)'와 관련 법령에 입각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감시와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루스만하디, 루스디하르조, 수로요 비만토로, 다이 바흐티아르, 수탄토, 밤방 헨다르소 다누리, 티무르 프라도포, 수타르만, 바드로딘 하이티, 티토 카르나비안 등 10인의 전직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직인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청장도 자리를 함께해 전·현직 수뇌부 간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정부 측에서는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 아구스 수비얀토 국군총사령관 등이 배석해 경찰 현안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치안 전반에 걸친 논의를 뒷받침했다.

현지 정가에서는 최근 경찰 개혁과 내부 쇄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프라보워 대통령이 원로 경찰 수뇌부와 직접 마주해 현안을 청취하고 지지 기반을 다진 이번 회동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영웅의 날' 맞아 국가영웅 19인 서훈… 명단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영웅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과 발전에 헌신한 역사적 인물 19인에게 국가영웅(Pahlawan Nasional) 칭호를 공식 추서했다. (10/11/2026) (Foto: Setneg RI)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영웅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과 발전에 헌신한 역사적 인물 19인에게 국가영웅(Pahlawan Nasional) 칭호를 공식 추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 국가궁전에서 거행된 서훈식을 주재하고, 대통령령 제93.TK/2026호에 의거해 19인의 유족 대표에게 서훈 상패와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서훈은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었거나 외교, 정치, 행정, 종교, 문화 등 각계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주권 확립과 민족 번영에 기여한 선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단행됐다. 이날 수훈자들은 군과 경찰 출신 인사를 비롯해 종교 지도자, 경제·행정 관료, 문인 등 다양한 배경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서훈 대상자로는 청렴과 관료 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고(故) 후갱 이만 산토소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독립준비조사협의회(BPUPKI) 위원이자 인도네시아 국립은행(BNI)을 설립한 R.M. 마르고노 조요하디쿠수모, 1955년 반둥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성사시킨 M.R. 알리 사스트로아미조요 전 총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현대 언어·문학 체계 형성에 공헌한 수탄 탁디르 알리샤바나, 1945년 11월 10일 수라바야 항전을 이끈 숭코노 육군 소장, 공군 창설을 주도한 수리아디 수리아다르마 공군 대장, 외교 분야의 모하마드 룸 등 근현대사의 핵심 인물들이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국가 연주와 묵념, 대통령 군사비서관 와휴 유다야나 육군 소장의 대통령령 낭독, 훈장 수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현장에는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과 적백내각(Kabinet Merah Putih) 주요 각료, 유가족 등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서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며 "선열들의 투쟁 정신과 숭고한 가치가 조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년도 인도네시아 국가영웅 칭호 수훈자 19인 명단

△고(故) 후갱 이만 산토소 (자카르타 / 관료 개혁 및 청렴 행정)

△고(故) R.M. 마르고노 조요하디쿠수모 (중부자와 / 정치 및 경제·BNI 설립)

△고(故) M.R. 알리 사스트로아미조요 (동부자와 / 정치 및 외교·반둥회의 주최)

△고(故) 압둘 무탈립 상아지 (말루쿠 / 무장 및 정치 투쟁)

△고(故) 프란시스쿠스 자베리우스 세다 (동누사텡가라 / 정치 및 외교)

△고(故) 수탄 탁디르 알리샤바나 (자카르타 / 언어 및 문학)

△고(故) 알리 사디킨 (자카르타 / 해군해병대 및 정치 행정)

△고(故) 술탄 무함마드 알리 압둘 잘릴 무아잠 샤 (리아우 / 대(對)VOC 무장 투쟁)

△고(故) 마라덴 팡가베안 (북부수마트라 / 국경 방어 작전 지휘)

△고(故) 숭코노 (동부자와 / 수라바야 항전 및 주권 수호)

△고(故) 라덴 수리아디 수리아다르마 (서부자와 / 인도네시아 공군 창설)

△고(故) K.H. 무함마드 유수프 하시엠 (동부자와 / 무장 투쟁 및 이슬람 교육)

△고(故) K.H. 와시드 (반텐 / 종교 및 무장 투쟁)

△고(故) 무슬림 무함마드 칼리파[키아이 모조] (북부술라웨시 / 자와 전쟁 참전 및 종교)

△고(故) 모하마드 룸 (자카르타 / 독립 외교 및 정치 투쟁)

△고(故) K.H. 압바스 압둘 자밀 (서부자와 / 이슬람 교육 및 무장 투쟁)

△고(故) 무함마드 유수프 (남부술라웨시 / 군사 및 정치)

△고(故) 술탄 이브라힘 칼릴루딘 (동부칼리만탄 / 민중 수호 및 무장 투쟁)

△고(故) 모흐 스루지 (동부자와 / 독립 수호 게릴라전 지휘)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유스릴 인니 조정장관 “기브란 부통령 학력 소송 재추진,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적 실익 없어”

유스릴이자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증명서 진위 재입증 시도에 대해 법적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스릴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브란 부통령이 행정법원(PTUN)을 통해 2024년 대선 당시 제출한 학력 서류의 유효성을 다시 다투려는 움직임에 대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스릴 장관은 해당 서류를 둘러싼 논란이 이미 헌법재판소(MK)와 대법원(MA)을 거쳐 법적 효력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니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역시 이미 확정됐다”며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동일한 대상과 쟁점에 대해 소송을 반복할 수 있는 법적 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브란 부통령의 당사자적격(원고적격) 결여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유스릴이자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 Menteri Koordinator Bidang Hukum, Hak Asasi Manusia, Imigrasi, dan Pemas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Foto: Dok. Istimewa)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인정확인서를 취소하라고 판결(사건번호 742 K/TUN/2026)한 소송은 민간인 수브한이 기초·중등교육부 기초·중등교육총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유스릴 장관은 “기브란 부통령은 해당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등 피참가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나 재심(PK)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직접 청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짚었다.

소송 피고인 기초·중등교육부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처가 재심을 청구하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제 서류(제9149/D.D1/KS/2019호)의 취소 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당국이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재소송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브란 부통령은 같은 날 오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회동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학력 서류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브란 부통령은 “초등학교부터 학사 학위에 이르는 모든 서류를 행정법원에 제출해 다투고, 기초·중등교육부와 공조해 대법원 재심을 추진하라는 조언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으나, 법무 당국의 총책임자가 즉각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응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하원 본회의 개회… 기브란 부통령 탄핵 요구 고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민대표의회(DPR RI)가 10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2026-2027 회기연도 제2회기 개회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회기는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을 둘러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개회되어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기브란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당시 학력 요건 및 대법원(MA) 판결과 관련된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9일 '국민고발연대'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자카르타 부통령 비서처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의회의 헌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하스토 크리스티얀토 사무총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출마 연령 완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학력 요건 논란 등 권력 남용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높다"며 "하원이 헌법상 권한인 '의견표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각계의 요구가 접수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기다리는 중이며, 지도부 차원의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원은 내부 의사규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akil Presiden Gibran Rakabuming Raka (Foto: Dokumentasi/BPMI Setwapres)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120명, 기브란 부통령 탄핵 위한 '의견표명권' 공식 발의



인도네시아 하원(DPR) 의장단 회의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하원(DPR) 소속 여야 의원 120명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의견표명권(HMP)' 발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하원 의장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사안 무스토파 하원 부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8개 교섭단체 의원 120명이 서명한 HMP 발의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소 발의 요건인 '의원 25명 이상'을 대폭 웃도는 규모다.

이번 발의는 복지정의당(PKS, 28명), 나스뎀당(NasDem, 19명), 민족각성당(PKB, 18명), 민주당(Demokrat, 18명), 투쟁민주당(PDIP, 14명), 골카르당(Golkar, 11명) 등 여야를 아우르는 8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성사됐다.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로 불거진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서류 위조 논란을 지적하며, 피소추인이 헌법 제7A조 및 제7B조에 명시된 부통령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사안 부의장은 "관련 법률(MD3법) 및 하원 의사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안건을 접수했다"며 "향후 현행 법령과 절차에 맞춰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결 요건을 갖춘 발의안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CGV | 2026년 11월 17일 ~ 23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INEMA Kids Club

인도네시아 최초!

지금 가입하고 바로 리워드를 받아보세요!

콤보 구매 시 50% 할인

영화 굿즈 10% 할인

할동 15.000 루피아 할인

어린이 1인당 Rp30.000 팝콘 무료 제공 & 웰컴 키트 증정!

* 팝콘 버킷 1개
* 도시락 1개
* 무비 패스포트 1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번 주 상영!

11월 18일



*어드벤처
*〈헝거 게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50회 헝거 게임 참가자를 뽑는 추첨이 진행된다. 이는 제2차 퀴터 필로도 알려져 있다.

11월 18일



*드라마
*같은 취미로 만난 두 소녀가 13년 동안 만화가라는 꿈을 향해 나아간다.

11월 21일



*음악
*여러 나라에서 스타디움 투어로 역사를 쓴 BTS의 여정이 카오슝으로 이어진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프라보워 대통령, '발리 트램 철도' 조속 착공 특별 지시… 2조 루피아 이상 투입

- 이 구스티 응우라라이 공항~짱구 잇는 친환경 배터리 전기 트램 구축
- 국영철도공사(KAI) 주도… 공항-레기안-짱구 2단계 순차 추진
- 만성 교통체증 해소 및 세계적 관광 허브 인프라 현대화 기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주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 철도 운송망 건설의 조속한 착공을 공식 지시했다. 인도네시아 관문 중 하나인 이 구스티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과 주요 핵심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번 대규모 교통 프로젝트에는 최소 2조 루피아(한화 약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공사(PT Kereta Api Indonesia, 이하 KAI)의 보비 라시딘(Bobby Rasyidin) 사장은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 단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른바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발리 철도 교통망 구축 세부 계획을 공식 보고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신속 착공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보비 사장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는 수도 자카르타의 중심 철도 관문인 감비르(Gambir)역의 현대화 가속화 방안과 함께 '발리 신규 철도 서비스 구축 프로그램'이 양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면담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보비 사장은 "발리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철도 건설 프로그램을 대통령께 직접 상세히 보고했다"면서 "1단계 노선은 이 구스티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북쪽의 세계적 휴양지인 쿠타(Kuta), 레기안(Legian), 스미냑(Seminyak)을 거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짱구(Canggu)까지 직결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 2단계에 걸친 순차 개발… 총 4년 공사 거쳐 전 구간 개통 목표

일명 '발리 트램(노면전차)'으로 불리는 이번 철도망은 공사의 효율성과 주변 관광 상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우선 1단계 구간은 응우라라이 공항부터 레기안 중심가까지 건설되며, 약 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어 1단계 완공 직후 레기안에서 짱구까지 연결하는 2단계 공사가 개시되며, 이 구간 역시 약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칠 것으로 추산된다. KAI 측은 총 4년에 걸친 단계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중교통 연결망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소 2조 루피아를 넘어설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보비 사장은 "대통령궁 보고 과정에서 이번 발리 철도 프로젝트에 투입될 순수 사업 예산이 약 2조 루피아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재정 소요액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인프라 사업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 법적·기술적 검토를 차질 없이 마쳤다고 강조했다. 계획에 따라 해당 트램 인프라의 궤도 부설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은 국영 철도기업인 KAI가 전적으로 주도해 추진하게 된다.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삼각 협력'… 2027년 착공 가시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진력을 얻고 있다. 앞서 발리주 정부는 핵심 관할 지자체인 바둥(Badung)군 정부, 그리고 PT KAI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구스티 응우라라이 공항-짱구 노선에 배터리 기반의 첨단 친환경 전기 트램을 도입하는 대중교통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공사(PT Kereta Api Indonesia, 이하 KAI)의 보비 라시딘(Bobby Rasyidin) 사장 (Foto: Dok. Istimewa)

와얀 코스테르(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PT KAI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보고받았고, 행정적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역시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라며 "모든 사전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궤도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겸 국가개발기획원(Bappenas) 원장이 공항에서 서부 해안 관광지구(짱구)로 이어지는 극심한 병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KAI 측에 내렸던 전략적 개발 지침의 연장선상에 있다.

발리 남부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급격히 유입된 관광객과 차량으로 인해 도로 교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음과 탄소 배출이 적은 배터리 기반 친환경 트램이 본격 운영되면, 만성 정체 해소는 물론 '글로벌 친환경 에코 관광지'로서 발리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3분기 경제성장률 5.87% 기록… 전국 평균 웃돌며 '경제 엔진' 입증

DKI 자카르타의 경제가 2026년 3분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자카르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87%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성장률(5.52%)을 넘어선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5.47%를 기록한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당 폭 상회하는 실적이다.

자카르타는 성장률뿐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 점유율에서도 16.09%를 차지하며 단일 주(州) 기준 최대 기여처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유지했다. 무역, 금융, 투자,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친 전략적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DKI 자카르타 지부의 이완 세티아완 대표는 9일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이 자바섬이라면, 그 중심에는 최고 성장률을 기록 중인 자카르타가 있다"며 "견고한 내수 수요와 투자 확대, 주요 서비스업의 호조가 이번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Bundaran Hotel Indonesia (HI) Jakarta. (Foto: Dok. Pemprov DKI Jakarta)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 부문의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가계 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6%, 5.44%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정부의 주요 전략 프로젝트 지속과 민간 투자 확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수지 역시 개선되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9.86% 증가한 반면, 재화 수입 증가율은 6.76%로 둔화했다. 직전 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정부 소비는 지출 집행 정상화에 따라 9.29%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금융 서비스업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출 거래액 증가와 금융 중개 활동 확대에 힘입어 금융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86%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전 분기(1.71%) 대비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국가 독립기념일 및 자카르타 시 기념일 행사, 신학기 수요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6.22%)과 숙박·음식점업(9.57%)도 활기를 띠었다. 정보통신업 역시 디지털 서비스 수요 확산에 힘입어 5.18% 성장하며 뒤를 받쳤다.

중앙은행 측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자카르타 주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 대표는 "물가 안정 관리와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 투자 및 생산 부문 육성은 물론,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속 추진해 경제의 구조적 회복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노동계, '근로자보호법' 최종안 즉각 공개 촉구

- KASBI, 본회의 통과 한 달 지나도록 공식 사본 미공개 비판
- "단순 정치적 승인 의식 그쳐선 안 돼… 대중 검증 보장해야"
- 비정규직 제한·외주화 철폐 등 11대 핵심 요구사항 발표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보호법(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의 최종 법률안을 즉각 공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 사본이 공개되지 않자,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동맹총연맹(KASBI)은 4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하원(DPR)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근로자보호법 최종안의 전면 공표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대중이 가결된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입법의 책임성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수나르노 KASBI 중앙집행위원장은 "가결 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단체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식 법률안 사본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구두로 통과 사실을 발표하는 것에 그칠 뿐, 최종안의 구체적 내용을 여전히 파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은 본회의장에서의 정치적 통과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문서 접근권 보장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ASBI는 대중 참여 입법의 핵심 원칙인 '의견을 진술할 권리', '의견이 숙고될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내세우며, 노동계의 요구가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법이 근로계약, 임금, 해고 요건, 외주화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노동 현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인 만큼, 최종 문안의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KASBI는 최종안 공개 요구와 함께 법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11대 핵심 실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안은 ▲기간제 근로계약(PKWT) 상한 1년 제한 및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 파견 및 용역 등 외주화(아웃소싱) 관행 철폐 ▲직업훈련 수습제도의 교육목적 정상화 ▲배달 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보장 ▲적정생계비(KHL) 기준 최저임금 책정 및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등이다.

또한 ▲일방적 해고 금지 및 분쟁 기간 임금 전액 지급 ▲퇴직급여 보증기금 신설 ▲독립적 근로감독위원회 설치 ▲국가재정(APBN)을 통한 직업훈련 예산 지원 ▲유급 생리휴가 2일 법적 보장 ▲근로계약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KASBI는 산하 조직 전반에 근로자보호법 최종안 공개를 압박하기 위한 대중 홍보와 집회·시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 검증 투쟁을 향후 2027년 주최저임금(UMP) 인상 요구와 연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이 2026년 10월 5일 밤 하원 제9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보호법안 실무위원회(Panja) 의결을 주재한 후,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DPR RI) 부의장 및 제9위원회 위원장단·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인도네시아 하원 자료)

인도네시아 실업률 4.75%로 하락… 2026년 8월 실업자 수 738만 명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실업자 7만 7천 명 감소, 취업자는 144만 명 증가
- 도시·농촌 전반서 고용 지표 개선… 여성 실업률 반등은 과제로 남아

[자카르타=경제부 종합] 인도네시아의 고용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실업률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실업자 수가 738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국가 공식 실업률(TPT)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5일(목) 자카르타 본청에서 열린 정례 통계 브리핑을 통해 '2026년 8월 고용 동향'을 공식 발표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공식 실업자 수는 738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746만 명) 대비 약 7만 7,000명 감소한 수치다. 실업자 수 감소에 힘입어 같은 기간 공식 실업률(TPT)은 4.75%를 기록, 2025년 8월의 4.85%에서 0.10%포인트(p) 하락했다.

인도네시아의 8월 기준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4.91%, 2025년 4.85%, 2026년 4.75%로 완만하지만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브리핑을 주재한 모하마드 에디 마흐무드(Moh. Edy Mahmud) BPS 국가계정·통계분석 부문 부청장은 "2026년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738만 명으로 집계되어 4.7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2025년 8월과 비교해 고용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동인구 1억 5,537만 명… 생산가능인구 증가 속 고용 확대

세부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 증가 흐름 속에서도 취업자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총 2억 2,0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4만 명 증가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억 5,537만 명(전년 대비 약 140만 명 증가)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30만 명 증가한 6,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는 1억 4,79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만 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이 실업자 감소 폭을 크게 웃돌면서 신규 노동시장 유입 인구를 산업 현장이 안정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자의 근로 형태별 구성을 보면, 전일제 근로자가 9,98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3,520만 명, 취업 상태이나 추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놓인 불완전취업자(반실업자)는 1,280만 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 남성 주도 고용 개선… 여성 실업률은 4.93%로 소폭 상승

이번 통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가 가시화됐다. 전체적인 실업률 하락세는 남성 고용률 개선이 주도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 분류 기준에 따르면 남성 실업률은 2025년 8월 4.85%에서 2026년 8월 4.64%로 0.2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여성 실업률은 4.84%에서 4.93%로 0.09%포인트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에디 부청장은 "2025년 8월 대비 2026년 8월 고용 지표 개선은 주로 남성 인구의 실업률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며 "여성의 공식 실업률은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구직 행사장 - Pencari kerja (Foto: Dok. Pemprov DKI Jakarta)

■ 도시와 농촌 동반 개선세… 지역별 고용 안정화 지속

지역별 지표는 도시와 농촌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실업률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2026년 8월 기준 실업률이 5.53%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75%) 대비 0.2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및 상업 시설이 집중된 도시 환경 내 고용 창출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 지역의 실업률 또한 전년도 3.47%에서 3.45%로 0.02%포인트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3년 연속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간제 및 불완전취업자 비중이 여전히 상당하고 여성 고용 여건이 다소 위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적 고용 확대를 넘어 고용의 질적 개선과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산업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닥친 사이버 공격 파고… 하루 120만 건 위협 감지에 당국 '비상'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해킹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은행권이 하루 만에 120만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며 금융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프랑스 크레디 뮈튀엘 아르케아 은행이 약 1억 유로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글로벌 금융 피해가 잇따르자,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도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글로벌 보안 기업 포티가드 랩스(FortiGuard Labs)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밤까지 24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은행·금융·보험 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120만 건을 넘어섰다. 이어 10일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기준 통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향한 공격이 220만 건(초당 평균 26건)에 달해 동남아시아 지역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금융 및 보험 부문이 100만 건으로 가장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으며, 기술 산업(40만 9,000건), 정부 부문(16만 8,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 위협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금융감독청(OJK)은 전 은행권에 경계령을 내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다. OJK IT 감독관들은 비정상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각 은행 전산팀과의 24시간 공조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디안 에디아나 라에(Dian Ediana Rae) OJK 은행 감독 총괄 대표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될 경우 즉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은행에 정기적인 모의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 및 기술 감사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둥 압두라흐만 정치안보조정부 장관은 국가사이버암호청(BSSN)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해킹 피해 여부와 파급 효과를 점검했다. BSSN은 현재 금융 부문에 151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TTIS/CSIRT)을 구축해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신속히 배포하고 있다.

OJK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계정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디안 대표는 "이용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가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은행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은행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포티가드(FortiGuard) 사이트 탐지 결과 화면 캡처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 3분기 경제성장률 5.47% 달성…
'민간소비·투자' 쌍끌이 견인

- 전분기(5.29%) 대비 성장세 가속화… 글로벌 불확실성 속 '선방'
- 민간소비 기여도 2.62%p · GDP 비중 51.97%… 내수 회복 탄력성 입증
- 설비 · 직접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GFCF) 호조, 정부 자본지출도 대폭 확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11월 5일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YoY) 5.4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Foto: Tangkapan Layar Youtube @BPSStatistics)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탄탄한 내수 소비와 실물투자의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 5%대 중반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5일(현지 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YoY) 5.4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인 5.29%를 0.18%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대외 악재 속에서도 경기 회복 및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발표에 나선 BPS의 모하마드 에디 마흐무드(Moh. Edy Mahmud) 국가계정·통계분석 부문 차장은 "2026년 3분기 명목 GDP는 6,741조 루피아, 연쇄원계열 기준 실질 GDP는 3,633조 2,0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며 "글로벌 무역 분쟁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국제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 등 다각적인 대외 압력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 활동은 고도의 복원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GDP 절반 차지하는 '민간소비',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 톡톡

이번 분기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민간소비였다. BPS 분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체 성장률(5.47%) 중 절반에 가까운 2.62%포인트를 기여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GDP 구조 내 비중 역시 51.97%에 달해 국가 경제의 확고한 버팀목 역할을 재확인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전분기(5.06%) 대비 소폭 둔화세를 보였으나, 통상적으로 3분기가 2분기 대비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견고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세부 소비 지표 전반에서도 뚜렷한 활력이 관측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02% 급증했고, 소비재 수입액도 12.77% 늘었다. 대형 내구재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인 오토바이와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2%, 25.95% 증가했다. 간편결제 보편화에 힘입어 전자화폐 거래액 역시 29.23% 폭증했다.

국민 이동성 증대와 여가 활동 확대 역시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진작을 이끌었다. 외식 수요 증가에 힘입은 음식·숙박업 하위 부문은 6.59% 성장했으며, 대형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 활성화 등으로 운수·통신 부문도 5.83%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 실물투자·제조업 활황 지속… FDI 27% 급증 등 펀더멘털 탄탄

민간소비와 함께 총고정자본형성(GFCF, 실물투자)이 성장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성장 기여도 1.9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전체 GDP의 30.8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와 실물투자를 합산한 내수 핵심 부문이 분기 전체 GDP의 82.78%를 점유하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확장 국면이 돋보였다. 산업신뢰지수(IKI)는 52.75, 인도네시아은행(BI)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8을 각각 기록해 기준선(50)을 상회하며 경기 확장세를 가리켰다.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시사하는 자본재 수입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22% 증가했다.

투자 유치 실적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국내외 직접투자 집행액은 총 7.59% 늘어났으며, 이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7.45% 급증해 동남아시아 핵심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여기에 인프라 확충 등을 겨냥한 정부의 국가재정(APBN) 자본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15% 대폭 확대되며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을 적극 뒷받침했다.

■ 재정·통화당국 공조… 거시경제 안정성이 성장 뒷받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꼽고 있다. 공급망 관리와 물가 안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은행(BI)이 기준금리(BI Rate)를 연 5.75% 수준으로 동결 유지하며 금융 여건의 급격한 위축을 방어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지 경제계는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가계 소비심리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재정 집행과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경제가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순조롭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WATER PURIFIER

SLIM STAND
CHP-5730R

12 L
Ambient 5.5 L
Cold 3.5 L
Hot 3.0 L

Cold 0.6A
Hot 500w

26 x 44.8 x 117.0 cm

Pebble Grey
Porcelain White

Paket 7 Tahun* 350,000/bulan
Paket 6 Tahun* 390,000/bulan
Paket 5 Tahun* 430,000/bulan
Paket 3 Tahun* 550,000/bulan

*Termasuk Perawatan dan Penggantian Filter

coway

WATER SOFTENER

YONSU | 연수
BB14-AID



Resin Penukar Kation
Asam Kuat Tipe NA+

Kapasitas Resin
1.5 L

28.5 x 19 x 50 cm

Termasuk
Filtered
Shower Head

Paket 7 Tahun* 260,000/bulan
Paket 6 Tahun* 280,000/bulan
Paket 5 Tahun* 310,000/bulan
Paket 3 Tahun* 370,000/bulan

*Termasuk Perawatan dan Penggantian Filter

coway

* 한국어 문의 0811-9294-114 (WhatsApp. KakaoTalk only)
* 인도네시아 문의 02-4586-9199 / 0813-1035-057
Kontak Bahasa Korea: 0811-9294-114 (Hanya WhatsApp dan KakaoTalk)
Kontak Bahasa Indonesia: 02-4586-9199 / 0813-1035-057

시민단체 시위 직면한 BYD, 인도네시아 수방 공장 채용 현황 공개
"인도네시아인 90%, 경력 요건이 걸림돌"

인력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현지 시민단체의 시위가 잇따르자, 중국 전기차 업체 PT BYD 모터 인도네시아(이하 BYD)가 서부자바주 수방 스마트폴리탄 산업단지 내 공장의 인력 구성 현황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열린 공장 프레스 투어에서 루터 판자이탄 BYD 공공·정부 관계 총괄은 지난 9월 가동을 시작한 해당 제조 시설의 총 인원 약 6,000명 중 90%가 인도네시아 국적자(WNI)라고 밝혔다. 루터 총괄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가운데 약 80%는 서부자바주 출신이며, 이 중 약 30%가 수방현을 포함한 공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수방통합시민포럼(FMSB) 등 현지 시민사회단체(Ormas)의 공장 진입 시위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이들 단체는 현지인 채용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수방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70%의 채용 쿼터제 도입과 공개 채용 우선권 부여, 직무 교육 제공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호소했다. 루터 총괄은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은 없으나, 관계 당국이 명확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의 가동률이 100%에 도달할 경우 최대 2만 명까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했다.

공장 소재지인 수방 출신 인력의 채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배경으로는 엄격한 '경력 요건'이 지목됐다. BYD는 프레스, 용접, 도장, 조립 등 주요 생산 직무 지원자에게 최소 1~2년, 엔지니어링 및 품질 관리(QC) 직무에는 최대 3~4년의 자동차 산업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PT BYD 모터 인도네시아(이하 BYD)가 서부자바주 수방 스마트폴리탄 산업단지 내 공장 Pabrik BYD di Subang (Sumber: Info Aktual Subang)

루터 총괄은 "수방 지역은 4륜차 완성차 제조 시설이 전무했던 곳"이라며, "공정 특성상 완성차 공장이 밀집한 서부자바주의 타 지역 경력자를 우선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BYD는 현지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동청과의 협력 및 지자체 추천 채용 플랫폼('냐리 가웨') 활용, 직업전문고등학교(SMK) 졸업생 대상 문호 개방(현 10% 미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지 우수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한 뒤 현장 인력 교육에 투입하는 선순환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한편, 서부자바주 정부는 사측과 시민단체 간 삼자 면담을 주선하는 동시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역시 필요 시 현장 조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현지화 비율을 둘러싼 갈등 봉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eekly Global FX Market Monitor

2026.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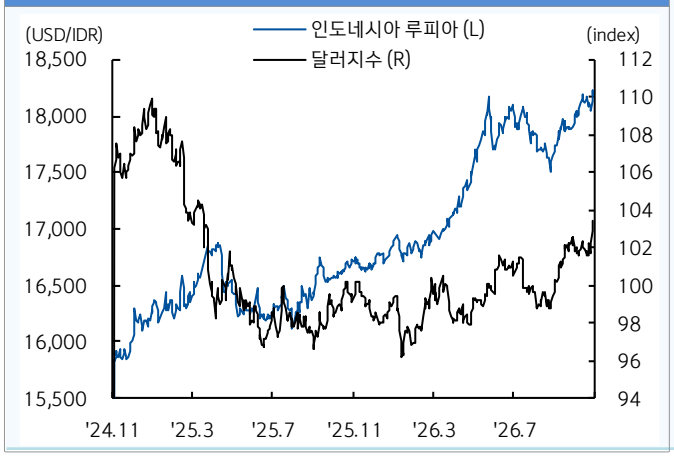
Indonesia

신한은행 S&T센터 소재용
02-2151-2638, jyso@shinhan.com

환율(USD/IDR)	18,195
52주최고	18,256
52주최저	16,614
주가(Jakarta index)	5,344
52주최고	9,174
52주최저	4,824
국채금리(10년물,%)	7.62
52주최고	7.81
52주최저	6.04
주요 경제 지표 Snap shot	
실질GDP성장률(%,YoY)	5.47
소비자물가(%,YoY)	3.23
생산자물가(%,YoY)	7.00
정책금리(%)	5.75
제조업 PMI (index)	54
산업생산(%,YoY)	1.66
소매판매(%,YoY)	1.00
수출(%,YoY)	11.86
수입(%,YoY)	18.41
경상수지(백만달러)	-12,487
재정수지(십억루피아)	-670,335
외환보유고(십억달러)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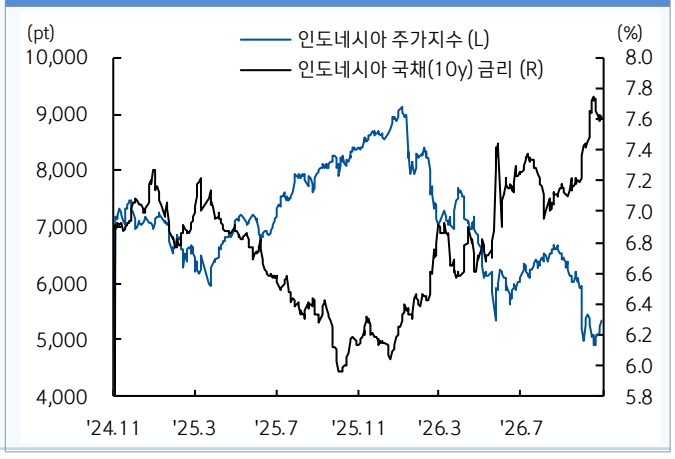
- 지난 주(11/9~11/13) USD/IDR(market rate)는 18,051~18,232 흐름(블룸버그 종가), 전주 대비 약세(-0.46%)
- 국제유가 다소간 하락에도 불구 미국 물가 상승과 AI 규제 강화 우려 속 글로벌 미달러 강세 진행. 인니 국채 수익률 비교적 안정세 보였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 여전한 가운데 루피아 환율 18,200선 다시 돌파
- 외국인은 지난 주 5영업일 간(11/9~11/13)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순매수 기록
  - 주식: 외국인 순매수(11/9~11/13 누적: 2,544만 달러) 기록, 자카르타 주가지수 상승(5.82%)
  - 채권: 외국인 순매수(11/9~11/10 누적: 3억 174만 달러) 기록, 금리 하락(10y, 7.62%, -3.00bp)
- BI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5.75% 기준금리 동결 예상. 내수 진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환율과 외국인 자금 이탈 방어를 위해 고금리 불가피, 연준의 행보에 따라 BI의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해
-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강세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다만 외국인들의 자산 매도세 다소간 줄어든 만큼 상단은 어느정도 제어될 소지(금주 예상 레인지 : 18,150~18,250)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인도네시아 주가지수와 국채 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RE:BOOT Shinhan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인도네시아 정부, 연말 소비 진작 위해 31조 루피아 규모 경기부양책 전격 집행… 7대 민생·교통 지원책 공개

- 프라보워 행정부, 가계 구매력 보존 및 5.4%대 경제성장률 수성 목표
- 저소득층 대상 쌀 지원 · 임금보조금 · 무료 계좌 개설 등 직접 지원 대거 포함
- 성탄절 및 신년 연휴 겨냥 항공 · 철도 · 해상 등 대대적 교통 요금 할인 혜택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4분기 연말을 앞두고 내수 진작과 가계 구매력 보존을 위해 총 31조 루피아(한화 약 2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전격 집행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행정부는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소비를 방어하고,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 지원, 임금보조금, 연말 교통 할인 등을 망라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1월 5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약 31조 루피아 규모의 부양책을 통해 민간 소비를 지속적으로 방어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부양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모멘텀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년 동기 대비 5.47%, 연간 누적 5.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4.5%), 한국(3.4%), 독일(1.2%), 일본(약 0.7%)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원유가 등 평균 에너지 도입 단가가 배럴당 93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예산(APBN)을 통해 대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 저소득층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7대 중점 경기부양 세부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1월 5일 경제조정부(Kemenko Perekonomian)에서 열린 2026년 3분기 경제성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Foto: Dok. Kemenko Perekonomian)

1. 초기 잔액 5만 루피아 포함 무료 예금 계좌 개설 지원

금융 포용성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17세 이상 인도네시아 국적자(WNI) 약 2,516만 명을 대상으로 신규 예금 계좌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계좌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초기 잔액 5만 루피아가 기본 예치된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현재 데이터 정합성 검토 및 관련 규정 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2개월 이내에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 3,324만 가구 대상 쌀 10kg 현물 지원 (총 17조 5,400억 루피아 배정)

이번 부양책 패키지 중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비중인 17조 5,400억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다. 소득 1~4분위 수혜 가구(KPM) 약 3,32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kg씩, 가구당 총 30kg의 쌀을 무상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 식료품 지원을 통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 지출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발생한 여유 소득이 여타 필수재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 1,330만 취약 근로자 대상 90만 루피아 임금보조금(BSU) 지급

월 소득 350만 루피아 이하이거나 주(州) 최저임금(UMP) 미만의 급여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약 1,330만 명을 대상으로 총 11조 9,700억 루피아 규모의 임금보조금(BSU)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월 30만 루피아씩 3개월분인 총 90만 루피아가 11월과 12월 사이에 일괄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생활비 압박이 가중되는 노동자 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데 실효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연말 국내선 항공권 정부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100% 면제

성탄절 및 2027년 신년(Nataru)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이용하는 승객 약 375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전액(100%)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이며, 이미 지난 10월 20일부터 조기 예매가 개시됐다. 항공 여행 비용 장벽을 낮춰 연말 관광 산업을 부양하고 지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5. 자바·북부 수마트라 일반 철도 운임 30% 감면

철도 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을 위한 운임 할인 혜택도 시행된다. 자바섬 및 북부 수마트라 지역을 운행하는 상업용 이코노미 클래스 열차 승차권을 대상으로 30%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 혜택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이며, 약 104만 명의 귀향객 및 여행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휴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상당 부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 국영선사 펠니(Pelni) 여객선 운임 30% 일괄 할인

도서 지역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영 선사 PT Pelni가 운항하는 전 노선의 이코노미 클래스 기본 운임에 30% 할인을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이며, 총 41만 4,000여 명이 수혜 대상이다. 해상 교통 의존도가 높은 외곽 도서 지역의 유동성 공급과 물류·인적 교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7. 주요 14개 항만 페리(ASDP) 이용료 전면 면제

인도네시아 페리공사(PT ASDP Indonesia Ferry)가 관할하는 전국 14개 주요 전략 항만에서 보행자 및 2종(이륜차), 4A종(소형 승용차) 차량을 대상으로 항만 이용료를 면제한다.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약 142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도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제거해 섬과 섬 사이의 이동성을 제고하고 연말 국내 관광 경기 활성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장기 구조적 경제 정책 병행… "성장 모멘텀 유지에 총력"

한편, 프라보워 행정부는 이 같은 단기 직접 지원형 소비 진작책과 더불어 국가 경제의 구조적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대선 공약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과 농·어촌 풀뿌리 경제를 지원하는 '메라푸티 마을·동 협동조합(KDMP)' 육성 사업이 거론된다.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MBG 프로그램은 식품, 원자재 농업, 식음료 가공업 전반에 강력한 내수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KDMP 사업은 촌락 단위의 상업, 물류 운송, 창고 인프라 개발을 빠르게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분기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매듭지어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단기 부양책과 중장기 인프라·복지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5%대 중반의 경제성장 경로를 확고히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중화요리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가야성에서 준비한

알곤이 짬뽕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곤이
깊고 얼큰한 해물 짬뽕



예약 문의
081295094658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최대 9.5% 인상 요구… 자카르타 627만 루피아 전망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최대 9.5% 인상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요구안이 원안대로 수용될 경우 수도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은 620만 루피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은 2027년 주 최저임금(UMP) 및 시·군 최저임금(UMK) 인상률로 7.5%에서 9.5% 수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위원장 겸 노동당 대표는 이번 요구안이 중앙통계청(BPS)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 약 3.20%와 경제성장률 5.43%에 현행 임금 규정에 따른 특정 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크발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가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6호의 제2차 개정안인 정부령 2025년 제49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적정생계비(KHL) 지표까지 포괄하여 임금을 산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는 상한선인 9.5%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지역에는 하한선인 7.5%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대 인상률인 9.5%가 적용될 경우, 자카르타 수도특별권역(DKI Jakarta)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자카르타의 UMP는 572만 9,876루피아로, 9.5% 인상 시 2027년에는 약 54만 루피아 상승한 627만 4,214루피아에 이르게 된다.

현재 2027년 UMP 확정안은 전국노사정위원회(LKS Tripartit Nasional)와 국가임금위원회의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오는 2026년 11월 말까지 각 주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노·사·정 간의 협상 과정에서 고물가 속 근로자 생계 안정과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 Presiden Prabowo salami buruh.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쉘 이어 BP도 인니 주유소 철수…
AKR, 합작법인 지분 전량 인수

- BP, APR 지분 49.9% AKR에 1,422만 달러 매각…현지 합작서 완전 철수
- 쉘에 이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의 소매 유통망 재편… ‘BP 브랜드’ 는 유지
- 국영 페르타미나 맞선 인니 연료 소매 시장, 현지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

[자카르타]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차량용 연료 소매 시장에서 잇따라 손을 떼고 있다. 네덜란드계 쉘(Shell)이 현지 주유소 사업을 매각한 데 이어, 영국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역시 합작법인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주유소 직접 운영에서 공식 철수했다.

10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물류 기업 PT AKR 코르포린도(PT AKR Corporindo Tbk, 이하 AKR)는 BP와 공동 운영하던 주유소 사업 합작법인 ‘PT 아네카 페트로인도 라야(APR)’의 BP 측 보유 지분 49.9%를 전량 인수했다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 거래는 AKR의 자회사인 PT 아누게라 크리다 리테일린도(AKRIDA)와 PT 안다하네사 아바디(ADH)를 통해 진행됐다. 인수 대상은 BP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던 주식 1,144만 4,565주로, 총 거래 금액은 1,422만 달러(약 198억 원) 규모다. 이로써 기존 5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AKR 그룹은 지분율을 100%로 끌어올리며 연료 소매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하리얀토 아디쿠수모 AKR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는 BP의 자산 매각 합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APR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회사의 영업, 재무 건전성 및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청(POJK) 규정상 중대 거래나 이해상충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BP 측은 이번 매각이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테후비줄루우 BP 인도네시아 지사장은 “주유소 소매 사업에서는 철수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BP의 핵심 전략 거점”이라며 “서부 파푸아 빈투니만의 탕구(Tangguh)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상류(Upstream) 부문 핵심 사업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분 구조는 바뀌었지만, 소비자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자보데타벡)과 자바섬 일대에서 운영 중인 75개 주유소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BP’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며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



SPBU British Petroleum(AKR)

앞서 쉘 역시 주유소 유통망과 터미널 등을 세파스 그룹 산하 PT 이슬라 에너지 인도네시아에 매각한 바 있다. 쉘 주유소 약 200여 곳 또한 기존 브랜드 명칭을 유지한 채 소유권만 이전된 상태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잇따라 소매 유통망의 직접 소유 구조에서 발을 빼면서, 인도네시아 연료 시장은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와 현지 민간 대기업 간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류 부문 등 핵심 자산에 집중하는 사이, 현지 기업들은 기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통망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며 “향후 연료 가격 및 품질 유지,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시장 재편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월 급여 350만 루피아 넘어도 2026년 BSU 받는다… 지역 최저임금 연동 예외 적용

월 급여가 350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근로자라도 근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2026년 임금보조지원금(BSU)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정부 임금/급여 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안(노동부 장관령 2026년 제16호)을 공포하고 세부 시행 기준을 확정했다. 해당 법령은 기존 노동부 장관령 2022년 제10호의 제2차 개정안이다.

통상적으로 BSU 지원 대상자의 급여 상한선은 월 350만 루피아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시·군 최저임금(UMK)이 350만 루피아를 상회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십만 루피아 단위로 올림 처리한 금액이 새로운 수급 자격 상한선이 된다. 시·군 최저임금이 책정되지 않은 지역은 주 최저임금(UMP)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령 별표에 명시된 주요 지역별 급여 상한선에 따르면, ▲자카르타 수도특별구(DKI Jakarta) 580만 루피아 ▲브카시 시·군 600만 루피아 ▲보고르 시 550만 루피아 ▲수라바야 시 530만 루피아 ▲반둥 시 480만 루피아 ▲메단 시 440만 루피아 ▲세마랑 시 380만 루피아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근로자는 기본 상한선인 350만 루피아를 초과해 급여를 받더라도, 조정된 지역별 상한선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6년 BSU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NIK)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국적자(WNI) ▲2026년 8월 기준 고용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 임금근로자 부문 활성 가입자 ▲월 최대 350만 루피아 이하 또는 근무지 기준 UMK/UMP 상한선 이하 급여 수령자 ▲국가공무원(ASN), 현역 군인(TNI), 현역 경찰(Polri) 제외 등이다.

자격 심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업주가 고용사회보장공단에 최종 신고한 기본급 및 고정 수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산정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으며, 대상자 여부는 노동부 공식 웹사이트(https://bsu.kemnaker.go.id/)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월 30만 루피아)에 해당하는 총 90만 루피아가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약 12조 루피아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약 1,330만 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생활물가와 최저임금 격차를 반영해 임금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인 생계 보탬이 필요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2026년 임금보조지원금(BSU) 안내 포스터

Pertamina, 2026년 Pertalite 추가 할당량 관련 입장 표명…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PT Pertamina(Persero)가 2026년 특수용도유류(JBKP)로 분류되는 보조금 연료 'Pertalite'의 할당량 추가 배정 논의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잔여 재정 예산과 정부 승인 여부에 따라 Pertalite의 할당량 추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Pertamina의 무함마드 바론 기업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11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할당량 규모의 확정은 물론 공급 및 수입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의 할당량 확대 방침이 정해진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바론 부사장은 Pertamina가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및 석유가스 하류 규제기관(BPH Migas)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의 유통 실적과 수요 전망 데이터를 정부 검토 자료로 꾸준히 제공해 왔다"며, "정부 위임 사업자로서 규제 당국의 결정에 맞춰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활한 연료 공급을 위해 재고 관리와 운송망, 유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보조금 연료를 용도에 맞게 정직하게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ntor Pusat Pertamina (Foto: Dok. Istimewa)

반면 주무 부처인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오트 탄중 차관은 지난 9일 의회에서 "올해 Pertalite의 전국 총할당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고가 남는 지역의 물량을 부족한 지역으로 재배분하는 지역 간 물량 조정"이라며, "총량이 증액되는 것은 Biosolar이며 Pertalite 물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규제기관인 BPH Migas는 2026년 특정연료(JBT)인 보조금 디젤유 할당량을 기존 대비 7.8% 증액한 2,027만 킬로리터(kl)로 승인했으나, Pertalite 할당량은 연말까지 기존 2,926만 kl를 유지하기로 했다.

BPH Migas의 와휴디 아나스 청장은 현재 전국의 Pertalite 공급 실적이 약 83.22%에 달했다고 밝혔다. 비보조 연료인 Pertamax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일부 수요 유입으로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현행 유통 방식과 지역 간 전용 조치를 적용하면 연말까지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BPH Migas는 Pertamina에 소진율이 낮은 지자체의 잉여 할당량을 소비가 급증한 지역으로 이전해 배분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한편, 급증하는 연료 수요와 맞물려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에너지 보조금 및 보상 집행액은 총 3,768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4.1% 급증했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APBN) 배정액의 84.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수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올해부터 에너지 보조금 지급 방식이 월별 집행으로 개편되면서 Pertamina와 PLN 등 위임 사업자에 대한 정산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보조금 연료(BBM)의 총공급 실적은 1,341만 kl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세를 기록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인도네시아 정부, 2027년부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전일제 대거 전환 추진

- 교사·교수부터 보건의료·소방·자치경찰까지 공공 서비스 전반으로 대상 확대
- 전일제 전환자에게 202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CPNS) 응시 자격도 부여



2026년 공무원(CPNS) 채용 등록에 관한 정부 및 하원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과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 (Dok. Istimewa)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간제 정부계약직공무원(PPPK)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들을 전일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기존 교원 중심이던 전환 대상을 대학교수, 보건의료 인력, 소방대원, 자치경찰대 등 공공 서비스 전반으로 넓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DPR RI)은 2026년 11월 6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부처 및 부문 간 시간제 국가민간공무원(ASN PPPK) 관련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 직후 프라세티오 하디(Prasetyo Hadi) 국가사무처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정부는 시간제 PPPK 신분으로 근무해 온 인력들을 전일제로 전환·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인력들에게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소방대원, 자치경찰대(Satpol PP), 보건의료 인력, 기술직 및 기타 현장 실무 인력이 폭넓게 전일제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프라세티오 장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안전 문제를 도맡아 해결하고 있는 소방대원을 비롯해 보건·의료 및 기술직 직원들의 신분이 시간제에서 전일제 PPPK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일제 PPPK로 전환된 인력에게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CPNS)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동등하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력 개발과 공직 정착의 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인력 수요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조율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의가 도출된 최종 회의에는 하원 지도부를 비롯해 리니 위디얀티니 국가행정개혁비효율개선부 장관,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압둘 무티 초중등교육부 장관, 나사루딘 우마르 종무부 장관 및 재무부 대표단 등 주요 관계 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공 인력 구조 개혁에 뜻을 모았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호주,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산불 진화 지원 위해 항공기 2대 및 전문 인력 급파

- 11월 6일부터 7일간 C-130 대형 유조기 등 투입… 집중 공중 진화 작전 전개
- 인니 방재청 "양국 우호의 상징"… 2020년 호주 산불 지원에 대한 '보은 연대' 성격도



BNPB와 호주 정부는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에서 산불 및 토지 화재 대응 작전을 개시했다. (5/11/2026). (Dok. BNPB)(BNPB)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Kaltim)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산림·토지 화재(karhutla)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 항공기 2대와 전문 인력 20명을 전격 파견했다. 이번 국제 구호 지원 작전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총 7일간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이번 공조는 최근 칼리만탄 전역에서 산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양국 간 체결된 재난 대응 협력 체계에 의거해 신속히 결정됐다.

투입된 항공 자산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농촌소방대(RFS) 소속이다. 핵심 전력인 C130 대형 항공 유조기(Large Air Tanker)는 1회 출격 시 최대 1만 5,000리터의 용수를 살포할 수 있는 대형 기종으로 공중 물 투하(Water bombing) 임무를 전담한다. 함께 투입된 세스나 사이테이션(Cessna Citation)은 화재 상공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목표 구역으로 본기를 안내하는 유도 임무를 맡는다. 비행 승무원과 작전 운용 요원, 의료 인력 등 20명의 산림 화재 전문 인력도 작전 기간 현장에 상주하며 진화 작업을 지원한다.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 청장(육군 중장)은 5일 자카르타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동칼리만탄은 중부칼리만탄에 이어 추가 대응 지원이 가장 시급한 중점 관리 지역"이라며 "양국 기술팀의 면밀한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호주 공중 전력을 동칼리만탄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스토메이 청장은 "이번 신속한 지원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호 연대하는 두 우방국 간의 굳건한 우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호주 정부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로드 브레이저 주선 인도네시아 호주 대사는 C130 기종이 현장 여건에 따라 일일 최대 6회까지 출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용수를 화두에 직접 집중 투하할 수 있는 항공 자산이 가세함에 따라 지상 접근이 어려운 산악 및 오지 지역의 화세 억제와 조기 진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브레이저 대사는 이번 파견이 두둥 압두라흐만 인도네시아 정치안보조정부 장관과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 간 고위급 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하며, "호주는 화재 진압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20년 호주 대형 산불 당시 인도네시아 국군(TNI)과 BNPB가 지원 인력을 파견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이번 작전이 양국 간 오랜 재난 공조의 역사와 호혜적 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이번 7일간의 한·호주 합동 공중 진화 작전이 지상 진화대 및 인공증우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화 지점을 조기에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불편을 유발하던 연무(Haze)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인니 칼리만탄서 산불 진화 헬기 또 추락… 1명 사망·외국인 조종사 2명 생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리콥터가 강으로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58분경 남칼리만탄주 바리토강에서 국가재난방지청(BNPB) 임차 헬기인 '유로콥터 EC225LP 슈퍼 퓨마'가 담수 작업 중 고도를 잃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헬기 착륙 유도원(HLO) 야얀 수피안수리 씨가 실종됐다가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탑승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 조종사 2명은 기체 탈출에 성공해 구조된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칼리만탄 일대에서는 불과 나흘 전인 지난 4일에도 군용 Mi-17 수송 헬기가 담수 작업 중 추락해 군인 3명이 순직한 바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공식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항공 기단의 기술 점검과 기상 조건 등 작전 안전성을 전면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당국은 공중 전력을 재정비하는 동안 지상 진화 작전을 한층 강화해 산불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남칼리만탄주 바리토강에서 국가재난방지청(BNPB) 임차 헬기인 '유로콥터 EC225LP 슈퍼 퓨마'가 담수 작업 중 고도를 잃고 추락했다. Foto: Helikopter jatuh ke Sungai Barito. (Foto: Dok. Istimewa).



자카르타 남부 맘팡 프라파탄의 잘란 끄망 슬라탄 X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10/11/2026).(Dok. BPBD DKI Jakarta)

남부 자카르타 남부 크망서 집중호우로 지반 붕괴… 주택 5채 파손·45명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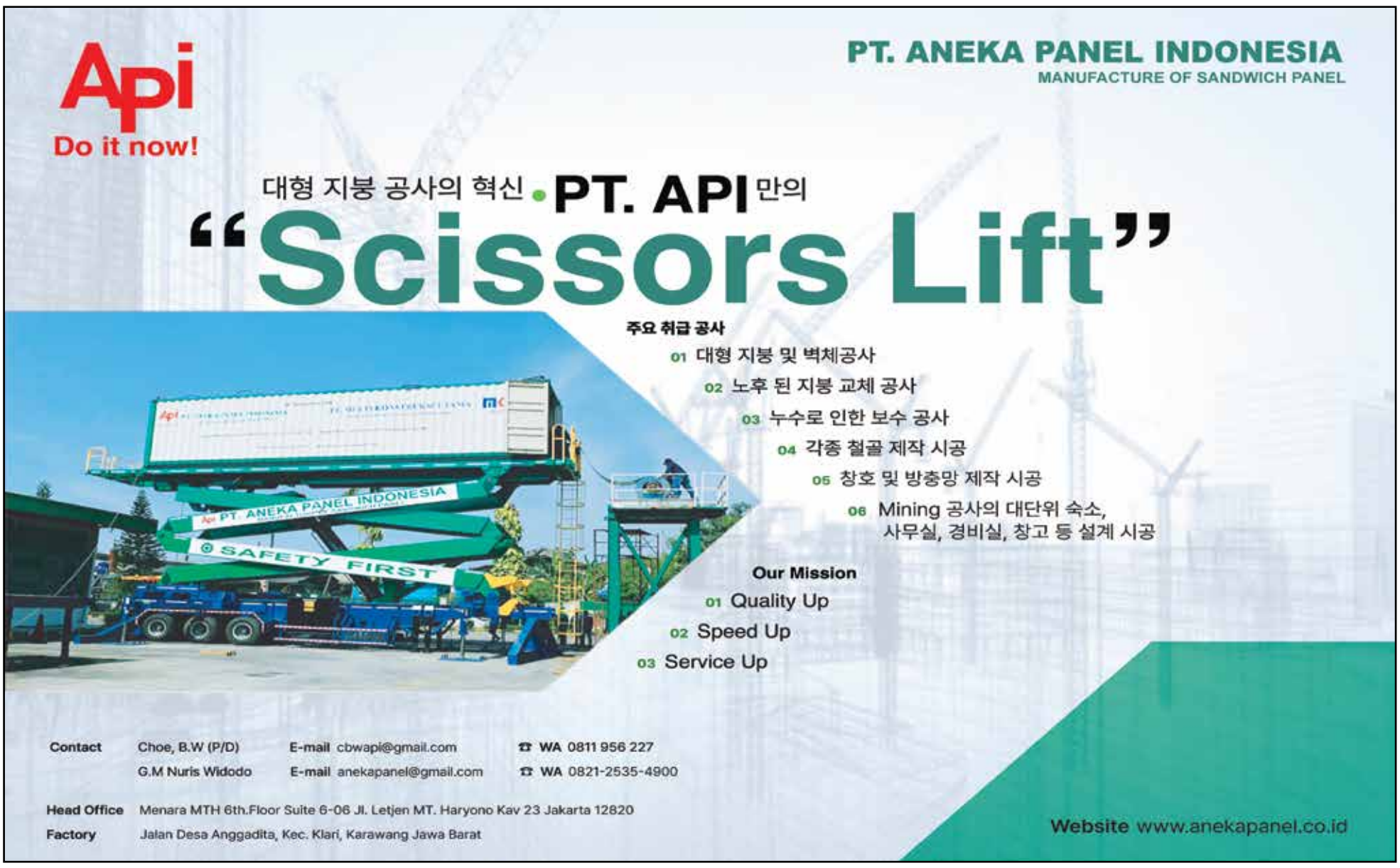
10일(현지 시간) 오후, 남부 자카르타 맘팡 프라파탄구 남부 크망 10번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붕괴가 발생해 주택 5채가 파손되고 8가구 45명이 피해를 입었다.

자카르타 수도권 재난관리청(BPBD)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경 발생한 사고로 인근 파텔 코트의 지반과 담장이 붕괴하며 주택가를 덮쳤다. 사고 직전 현장에서는 굉음과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PBD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변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국은 소방구조국과 경찰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수습에 나섰으며,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반 균열 부위에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마룰리투아 시자밧 BPBD 청장은 "비탈면과 하천 인근 주민들은 균열이나 기울기 변화 등 지반 침하 징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위험 감지 시 즉각 대피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인도네시아 경찰청, 'POLIRAN' 취업박람회 개최… 8,875개 일자리 제공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 안보유지국(Baharkam Polri) 산하 지역사회지도국은 서부자바 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이니셔티브인 'POLIRAN'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4개 기업이 참여해 총 8,875개의 일자리를 선보였다. 채용 분야는 반둥 등 서부자바 주요 지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해외근로자배치보호서비스청(BP3MI)을 통해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12개국에 파견될 해외 취업 인력 3,210명 모집도 포함됐다.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구직자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직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SKCK) 발급, 무료 건강검진, 장애인 상담 부스 등 각종 공공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으며, 약 2,000명 규모의 민간경비원 직무 역량 평가 시험도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루디 샤프루딘 경찰준장은 "경찰은 단순 치안 유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국민의 고용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은 서부자바 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이니셔티브인 'POLIRAN'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충남 우수상품
시식행사
충남의 맛을 만나보세요
해멸첨
ANCHOVY
NICE CHIPS
프로틴
쿠키
키미쫑
기간: 11월 16일~ 11월 30일.
장소: 무궁화 본점 1층.
Chungnam
kotra
MU GUNG HWA

“그때 그 노래, 다시 만나는 우리들의 청춘!” 자카르타, 7080 추억의 밤으로 물들다



7080 자카르타 라이브 콘서트에서 홍서범 가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2026년 11월 7일, 자카르타 프라자 스나얀 볼룸에서 열린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가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자카르타 한인 최초 풀밴드 라이브 콘서트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7080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당시의 뜨거웠던 청춘과 향수를 쏟아내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7080 자카르타 라이브 콘서트 출연진 단체 사진

추억을 소환한 감동의 무대: 7080 스타들의 열창

이날 공연 시작은 CBS 김현정 앵커가 낭독한 초대장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7080 음악의 상징적인 존재인 홍서범, 현숙, 권성희, 건아들 곽종목, 남궁옥분, 고상록, 조갑경 등 7인의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가수 홍서범은 특유의 유머와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며 “고향에 온 느낌이다. 7080 가수, 특히 인도네시아 동포들에게 사랑받은 가수들을 총동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살로 돌아갑시다! 한마음으로 노래하자, 맘껏 즐기자, 다 같이 함성!”이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유도했고, “추억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를 열창하며 변치 않는 가창력을 과시했다.

가수 현숙은 특유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며 “참가자 모두가 다 오빠와 같다”는 친근한 멘트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그녀의 히트곡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가수 권성희는 “90년대 방문 이후 오랜만에 인도네시아에 왔다. 꿈같은 공연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건아들의 곽종목은 “처음 온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아서 이민 오고 싶다”는 재치 있는 발언과 함께 ‘나는 세상모르고 살았노라’를 열창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의 파워풀한 가창력은 당시 캠퍼스 밴드의 열기를 그대로 재현해냈다.

가수 남궁옥분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꿈을 먹는 젊음이’, ‘나의 사랑 곁으로’ 등 자신의 대표곡들을 부르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갖게 되어 감사하며, 송창근 한 사람이 새로운 창의를 보여주었다. 15년 전 인연으로 다시 찾아와 공연하게 되어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수 활동하게 응원해줘 감사하다”며 한인동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가수 고상록은 “19세 때 작사 작곡한 구창모의 노래이자 1978년 TBC 가요제 우수상 수상곡인 ‘구름과 나’”를 열창하며 관객들을 70년대 젊음의 에너지로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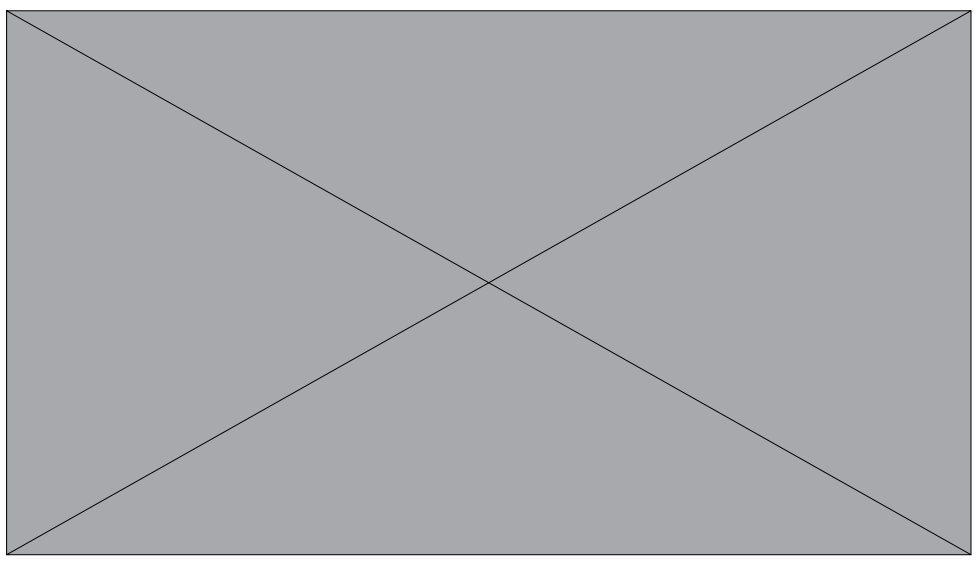
가수 조갑경은 “1988년부터 노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너무 세심하고 따뜻한 한인 동포들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멘트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인터뷰, 7080 공연 기획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날 공연장에서 한인포스트와 연합뉴스는 홍서범과 남궁옥분과 특별 인터뷰를 통해 ‘7080 자카르타 라이브 콘서트’ 참가 의미를 알아봤다.

방송인 겸 가수 홍서범은 이번 공연의 성사 배경에 대해 “송창근 회장님과 약 6~7년 전부터 교류하며 이번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다. 회장님께서 7080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국내에서 ‘콘서트 7080’ 프로그램이 사라진 점을 무척 아쉬워하셨다. 오랜 논의 끝에 올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연 구성에 대해 “전체 곡 수는 약 24~26곡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했다. 출연 가수들이 워낙 히트곡이 많다 보니 선곡에 고심했으나, 1인당 최소 4곡(개인 곡 3곡 및



7080 자카르타 라이브 콘서트에 추억의 포토존에서 단체사진



7080 자카르타 라이브 콘서트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송창근 회장과 BTN 은행

다 함께 부르는 곡 포함) 이상을 소화하며 관객과 호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연진 조합의 특징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로 캠퍼스 밴드 위주로 공연을 꾸렸으나, 이번에는 대중적인 포크 가수 남궁옥분 씨를 비롯해 기성 가수들이 고루 섞여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홍서범은 동포들에게 "최근 방송 트렌드가 트로트 위주로 재편되면서 7080 특유의 무대를 접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타국에서 국위선양과 경제 발전에 힘쓰고 계신 동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청춘 시절의 추억을 생생하게



7080 자카르타 라이브 콘서트에서 송창근회장과 홍서범 가수

되살려 드리고 싶다. 화면으로만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라이브 무대의 전율과 함께 20대 시절의 열정을 다시 느끼시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력과 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관객에게 최상의 가창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라톤과 유산소 운동 등 꾸준한 체력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무대에 서는 가수로서 관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가수 남궁옥분은 공연 참여 소감에 대해 "공연장에 직접 와서 보니 한 개인이 이런 대규모 무대와 시스템을 실현해 냈다는 사실에 깊이 놀랐고 큰 감명을 받았다. 너무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가수로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송창근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송 회장님과는 약 10여 년 전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가치 있는 일에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다. 그분이 추진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한 이유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흔쾌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자카르타 방문의 추억에 대해 "10여 년 전에도 자카르타에서 7080 형태의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적이 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인 만큼, 이번 무대에서도 동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창근 회장 " 7080 세대의 헌신에 경의를 전하기 위해 개최"

이번 공연의 총괄 기획자인 송창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7080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와 한인 사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선배 세대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 한인 동포들이 단순한 일상을 넘어 현지에서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콘서트를 즐기며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나눔과 상생의 미학: 장학금 수여식과 포토존

이번 '7080 추억의 밤'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세대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송창근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과 교민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재계 및 문화계 유력 인사들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인도네시아 상원의장(DPD RI 의장)을 비롯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부부,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내외, 하나은행 및 J트러스트 은행 관계자, 현지 록스타 밴드



한인포스트와 연합뉴스는 7080 라이프콘서트에 출연한 홍서범 남궁옥분 가수와 인터뷰 하고 있다.

가수들이 참석하여 콘서트의 열기를 더했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의 백미는 장학금 수여식이었다.

송창근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인도네시아 차세대 인재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고 전하며, 한·인니 다문화 가정 대표 및 한국어 수학생들에게 2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를 보냈다. 현지 주택국영은행인 BTN(Bank Tabungan Negara)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 중 한국어를 배우는 우수 인재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장학금을 후원한 BTN 측은 행사 무대에서 "한국인 고객의 편리한 금융 이용을 돕기 위해 '한국인 전용 데스크'를 최초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히며 한인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공연장 입구 로비에는 7080 향수를 돋우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70~80년대 교복과 모자, 가방, 도시락이 전시된 포토존에서 관람객들은 모자와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의 즐거움을 나누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는 음악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 동포 사회와 현지 사회가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뜻깊은 송년의 밤을 완성하며 자카르타 한인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동포사회부/편집부 종합)

연말연시 국내선 항공권 최대 12% 인하… 가루다·시티링크, 100만 석 대규모 공급


Garuda Indonesia dan Citilink Indonesia (Foto: Istimewa/HO)

인도네시아 정부의 항공 부문 부양책 시행에 힘입어 다가오는 성탄절 및 신년(Nataru) 연휴 기간 국내선 이코노미석 항공권 가격이 최대 12%가량 인하된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자회사 시티링크는 급증하는 연말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0만 석 규모의 좌석을 공급하기로 했다.

11일(현지 시간),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미키 이르판디(Micky Irfandi) 글로벌 영업·유통 부사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시티링크와 함께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운항하는 국내선 노선에 최대 100만 석의 좌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이동 기간 동안 국가적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원활한 귀향 및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운임 인하는 정부가 내놓은 항공 산업 지원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국내선 이코노미석을 대상으로 11%의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여객서비스료(PJP2U) 등 주요 공항 서비스 이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미키 부사장은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 국내선 이코노미석 항공권 가격이 약 11~12%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들의 항공 교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다 항공 그룹은 운항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다각적인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병행해 지역 관광 산업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통부 항공운송국 룩만 F. 라이사(Lukman F. Laisa) 국장 역시 이번 정책에 따른 운임 인하 효과를 확인했다. 룩만 국장은 "노선과 일정, 잔여 좌석 현황 등에 따라 실제 인하 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부양책이 국영 항공사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항공사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양책 적용 운항 기간은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이며, 혜택이 적용된 항공권은 내년 1월 10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교통부는 부양책이 규정에 맞춰 현장에 안착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쇼핑객 말레이 원정 쇼핑 급증…소매업계, "초콜릿 등 수입 규제 완화해야"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소매업·임차인협회(Hippindo, 이하 힙핀도)

인도네시아 쇼핑객들이 특정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 말레이시아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사례가 늘자, 현지 소매업계가 정부에 수입 규제 완화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공급 부족이 소비자 유출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소매업·임차인협회(Hippindo, 이하 힙핀도)는 산업부를 향해 국내에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일부 포장 초콜릿 브랜드의 수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디하르조 이두안샤(Budihardjo Iduansjah) 힙핀도 총회장은 10일 자카르타 그랜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산 제품 쇼핑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일부 포장 초콜릿 제품이 국내에 공식 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말레이시아 쇼핑몰로 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대형 쇼핑몰의 방문객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디하르조 회장은 "현재 말레이시아 쇼핑몰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붐비고 있다"며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국내 쇼핑몰이 아니라 해외 쇼핑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소비 기반이 유지된다면 글로벌 완제품 수입 역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정 품목의 수입 허가 지침을 원활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업계는 과거 최신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 지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식 유통 경로가 막힐 경우 해외 구매대행(Jastip)이나 원정 소비 등 비공식적 경로가 확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 시장 내 주요 출시국으로 자리잡고, 해외로 이탈하는 쇼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디하르조 회장은 시장성 테스트 단계 등에서 수입 허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해외 투자 유치와 쇼핑몰 집객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힙핀도는 이날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산 제품 쇼핑' 및 '인도네시아에서 쇼핑하자(BINA)' 캠페인을 발표하며, 5일간 10조 루피아(약 8,800억 원) 규모의 내수 거래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협회는 불법 수입 단속에는 적극 협조하되, 국내 공급이 불가능한 핵심 소비재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공식 수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JIKS,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손잡고 재외국민 학생 맞춤형 '문해력·기초학력' 키운다

- 11월 6일 김경국 이사장 · 이문성 교장 등 방문단, 전북교육청 찾아 교육 협력 및 교재 전달식 가져
- 전북교육청 자체 개발 '초등어휘사전 1600' 140부 지원받아… 초등 3~6학년 국어 및 교과 보충 수업에 본격 활용

자카르타한국학교(교장 이문성, 이하 JIKS)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 성)과의 긴밀한 교육 협력을 통해 해외 거주 한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어휘력과 기 초 문해력 신장에 박차를 가한다.

JIKS는 11월 6일(금), 김경국 이사장과 이문성 교장 등 학교 방문단이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천호성 교육감과 재외한국학교 교육 지원 방안을 논 의하고,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기초학력 핵심 교재인 '초등어휘사전 1600' 140 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JIKS에 도서기증

■ 해외 거주 학생들의 모국어 어휘력 갈증 해소…

JIKS의 적극적 협력 요청으로 성사 이번 교재 지원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겪기 쉬운 한국어 어휘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교과 학습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JIKS 측이 전북교육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면서 성사되었다.

전달받은 '초등어휘사전 1600'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핵심 어휘를 학 년·학기별로 알기 쉽게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문장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기초학력 교육자료다.

■ 초등 3~6학년 교과 보충 지도 투입… 글로벌 K-교육 네트워크 확장

JIKS는 이번에 확보한 교재 140부를 본교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의 2026학년 도 2학기 국어 수업 및 교과 보충 지도 프로그램에 즉시 투입해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휘 확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 중·고학년 학생 들이 탄탄한 모국어 문해력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JIKS는 현지 수업에서의 생생한 교재 활용 사례와 교육적 성과를 전북교육 청과 공유하여 향후 교육자료 개선에 힘을 보태는 등, 국내 우수 교육기관과의 지 속 가능한 '글로벌 K-교육 협력 모델'을 이어갈 방침이다.

■ "탄탄한 모국어 문해력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

이문성 교장은 "해외 교육 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체 성을 지키고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문해 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외국민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귀중한 교 육자료를 기꺼이 지원해 준 천호성 교육감님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JIKS는 '미래역량을 기르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K-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초등 기 초학력부터 중등 진로·진학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부)



JIKS, 2028학년도 대입 선제적 대비 위한 2026학년도 9~11학년 맞춤형 진학설명회' 개최

- 11월 2일 '2026학년도 9~11학년 진학설명회' 성황리 개최… 3년 · 12년 특례 맞춤형 전략 제시
- 교사 개인의 경험을 학교의 공적 자산으로 승화… 학업 성취도와 서류 역량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양대 분석 체계 가동

자카르타한국학교(교장 이문성, 이하 JIKS)는 11월 2일(월), 본교 나래홀에서 11 학년 재학생 및 9~1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진학설명회'를 개최하 고, 교사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움직이는 'JIKS형 통합 진학지도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년 특례 대상(오전)'과 '12년 특례 대상(오후)'으로 이원화하여 진행되었으며,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결과 경향 파악 및 2028학년도 대비 전략과 함께 JIKS가 구축한 선진화된 진학 상담 체계를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JIKS, 2028학년도 대입 선제적 대비 위한 2026학년도 9~11학년 맞춤형 진학설명회'개최

■ "사람은 바뀌어도 경험은 축적된다"… 학교 차원의 영속적 진학 시스템 확립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이문성 교장은 "JIKS의 진학지도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

으로 움직인다"는 핵심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재외한국학교의 특례 진학은 객관 적인 활용 도구가 부족해 어떤 담임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담의 기준과 강조점 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JIKS는 다년간 축적된 본교의 입시 지도 노하우를 체계화 하여,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 전체가 공통된 기준과 전문성으 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공적 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선배들의 진학 흐름 이 후배들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는 영속적인 진학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숫자도 보고, 숫자 뒤의 학생도 본다… '정량·정성 통합 분석 시스템' 가동

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성적과 서류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진단하는 '정량·정성 통합 진학지도 시스템'이었다. 대학이 단순히 평균 등급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속한 학업 환경과 전공 관련 핵심 과목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발맞춰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아우르는 양대 체계를 갖춘 것 이다.

▲ 정량 분석 시스템: 객관적인 학업 성취 지표를 바탕으로 학생의 현재 학업 위치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목표 대학 및 계열에 부합하는 학기별 학습 전략을 수 립하도록 돕는다.

▲ 정성 분석 시스템: 대학별 인재상과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전공 관련 핵심· 권장 과목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긴 학생의 역량과 강점을 입학사정관의 시선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JIKS는 이처럼 체계화된 정량·정성 분석 시스템 위에 12학년 담임 및 진학담당 교사의 깊이 있는 해석과 전문적 상담을 더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형 진학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12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9학년(탐 색·학업기초) ▲10학년(진로방향·과목선택) ▲11학년(학생부 점검·목표 구체화) ▲ 12학년(지원전략·최종상담)으로 이어지는 전 학년 맞춤형 로드맵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선배의 경험이 후배의 길이 되는 학교, JIKS"

이문성 교장은 "진학 시스템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분석 도구 가 교사의 판단을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12학년의 입시 결과는 9~11학년의 과정 위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숫자도 보고 그 숫자 뒤에 있는 학생의 성장 과정도 함께 보는' JIKS만의 통합 진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 신의 꿈을 흔들림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JIKS. 동포사회부)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invitation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
The Indonesia Branch of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제18회 자필묵연 정기전
The 18th Japilmukyeon Exhibition

내 삶의 한 단어
One Word of My Life

▪ 초대합니다 ▪

제18회 自筆墨緣 정기전에 삼가 모십니다.

적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먹을 가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 자필묵연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열여덟 번째 정기전을 펼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내 삶의 한 단어〉 입니다. 회원 저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 깊이 품어 온 한 단어를 골라 화선지 위에 새겼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스스로를
갈고닦으며 문화의 뿌리를 지켜 온 한국인의 열정이 한 획 한 획에 스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사)한국서예협회 송현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오치정 서울시지회장,
최명식 경기지회장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걸음하시어 은은한 묵향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나누어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iod 2026. 11. 26 Thu ~ 30 Mon
Open 10am · Closing 6pm

Venue WISMA KORINDO 2F Special Exhibition Hall

Opening Ceremony 2026. 11. 26 Thu 3:00 pm

主催 _ 社團法人 韓國書藝協會 印尼支會
主管 _ 自筆墨緣

出品作家

이정 권장문	일우 김도영	유경 김동석	초아당 김수연	하정 김영욱	운초 김영주
무불 김유만	연청 김인숙	설초 김채선	초여 김혜영	동음 김혜정	송운 김희선
시화 김희진	유정 노정희	추산 박도연	가산 박성대	정산 박주현	혜산 송판원
보덕 신동필	우빈 양승식	연포 이규환	여산 이성득	묵정 장 임	이도 정재익
유석 정철호	도념 제경종	풍곡 조용래	익조 최태립	송헌 한규성	

〈지도선생〉 인재 손인식 〈찬조출품〉 문정 송현수 · 혜천 오치정 · 취평 최명식

〈시〉

궤도 밖에도 길은 있어!



이영미
(한국문협 인니지부)

‘9인조 신인 보이 그룹 멤버, 무대 사고로 활동 중단’

‘무대 점검 부실이 부른 비극’ 등

테리의 사고는 뉴스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다.

결국 유니버스는 여덟 명으로 데뷔했다.

아홉 번째 자리는 남겨두겠다.

하지만, 테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제 명단에서 지워진 아홉 번째 행성이라는 걸.

“정해진 궤도 밖에도 길은 있어.

너만의 새로운 우주를 만들면 돼.”

– 「휠체어 타고 다이빙」 중에서

시작 노트:

아동문학가 이영미 작가의 신작〈휠체어 타고 다이빙〉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초판에 이어 2쇄까지 무려 1만 1천 부 인쇄되었고, 현재 시중의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모 논술교실의 교재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독자의 반응이 이렇게 빨리 올까? 궁금증이 작품집을 펴 들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 보인다. 주인공 테리는 자신의 존재를 “이제 명단에서 지워진 아홉번째 행성”이라고 다짐한다. 먼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마치 인위적인 명단이 행성의 궤도처럼 느껴진다. 궤도가 달라지더라도 행성 존재의 본질은 변함이 없듯이, 궤도는 또 만들면 되는 것이다. ‘너만의 새로운 우주를 만들면’ 된다는 가족의 위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은뉴적으로 살펴보자면, 궤도 안에서 존재하는 삶이 유일한 행복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있다.

여기까지 「휠체어 타고 다이빙」의 도입부에 실린 내용이다. 소설의 복선처럼, 이 작품의 선언문처럼 우뚝 솟아있다. 「휠체어 타고 다이빙」은 동화로 발간되었지만, 그 묵직함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함께 울린다. 이제 바다를 탐험할 시간이다. 글: 김주명(시인)



재외국민 한인동포-외국인을 위한 한국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예약 원스톱 플렛폼 '스캔포스트'

ScanPost 스캔포스트
Korea Medi Check Solutions & Services

www.scanpost.kr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글로벌 에이전시
- AI기반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최다 의료진
- 여행지 전국 주요도시 17개 지부에서 검진
- 외국인 전용 검진센터(인천.서울.원주.부산.제주)
- 내/외국인을 위한 동일 가격 패키지 제공
- 주요도시 국내 관광 여행 최고 패키지 완비

코리아메디패스 (Korea Medipass) |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SOFTZION | HanInPost 한인포스트 | JACY CLUB

@scanpost

koreascanpost@gmail.com / kakao ID : scanpost

www.scanpost.kr





